

마음을 울리는 다큐를 만나다



'할매꽃'에 등장하는 나경순씨의 빛비란 가족사진(왼쪽). 나경순씨와 오빠 종만·여동생 경애(왼쪽부터)씨.

“이념이 빛은 불행 다신 없어야죠”

■ 아들 문정현 감독 '할매꽃' 출연한 나주 나경순씨

나주 시내에 위치한 유선주어탕 나경순(64) 경애(61) 자매 사장은 지난 2006년 영화에 출연했다. 감독은 경순씨의 아들 문정현(조대부고 출신)씨. 문 감독은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와갓집의 '50년 가족사'를 담담히 카메라에 담았다.

문 감독의 내레이션과 함께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할매꽃'은 '좌의' 출신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다. 감독은 6·25 이후 외할머니 가족에 얹힌 비극을 통해 좌우익으로 분열된 근현대사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2일부터 광주극장에서 상영중인 '할매꽃'은 2007년 올해의 독립영화상,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받았고, 베를린국제영화제,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었다.

나주에 살고 있는 경순씨 등 외가족 식구들은 문감독의 카메라 앞에 섰다. 이모할머니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입을 다물었지만 작은외할머니 등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좌의 출신으로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을 카메라 앞에서 담담히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읍한 작은 삼촌은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에 가담하고, 그의 딸을 북송선에 태워보낸다. 실로 파란만장한 가족사다.

"아들이 처음 와갓집 이야기를 다큐로 찍고 싶다고 했을 때 전 찬성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카메라만 대면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다큐에도 나오지만 저희집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제 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큰 외삼촌을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렵사리 그 친구와 연락이 됐지만 차마 그 말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경순씨는 "우리에게도 비극이었지만 친구네 가족에게도 이건 큰 비극"이라며 "결국은 두 가족이 화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오빠 종만(75)씨는 "앞으로는 정말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독한 외할머니를 카메라에 담으며 감독이 던지는 '수고하셨다'는 한마디가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할매꽃'은 인물들과의 인터뷰가 주가되는데다, 그것도 한가족의 사적인 내밀한 기록을 담고 있지만 지루하지 않고 깊은 울림을 준다.

9일 오후 7시 상영이 끝난 후에는 문정현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경순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에 가담하고, 그의 딸을 북송선에 태워보낸다. 실로 파란만장한 가족사다.

이날 함께 자리한 오빠 종만(75)씨는 "앞으로는 정말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1970년대 나주호 건설로 수몰되어 없어진 철성 등 땅이름도 나타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 청년문예 출신 김선태씨 세번째 시집

‘무돌아트컴퍼니’ 갤러리 오픈

<사회적 예술기업>

옛 나인갤러리 새단장… 8~25일까지 기념전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인 '무돌아트컴퍼니'가 갤러리를 오픈하고, 개관 기념전을 갖는다.

무돌아트컴퍼니는 오는 8일~25일까지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무돌아트갤러리(옛 나인갤러리)에서 '좋은 아침-54인의 시선' 전을 갖는다.

'봄, 도약, 생명탄생' 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관전에는 무돌아트컴퍼니에 참여하고 있는 54명의 지역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인다.

송필용, 정희승, 진스하, 장현우, 조근호, 박수만, 한희원, 오경규, 박문종, 백현호, 오이랑, 정운학, 손봉재, 진경우, 김상연, 강운, 정선휘, 정광희, 정경래,

이정록, 황지영씨 등이 참여한다.

무돌아트갤러리는 올해 8회의 전시를 열어 무돌아트컴퍼니 참여 작가를 비롯해 지역작가들의 참신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또 작품 판매를 통해 참여 작가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도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서울 인사동 라이트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어, 지역 작가들의 중앙 진출을 후원할 예정이다.

한편 무돌아트컴퍼니는 지역문화교류회장재단이 지역 작가, 미술기획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만들었고, 노동부가 인건비(약 80만원)를 지원하는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이다. 무돌아트컴퍼니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창작단(단장 한희원)



박수만 작 '봄을 선물하다'

과 각종 사업들을 전개할 기획단(단장 김윤기)으로 꾸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선태씨 세번째 시집

창비서 '살구꽃이...' 폐내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선태(49) 시인이 세번째 시집 '살구꽃이 돌아왔다' (창비 폐냄)를 출간했다. 2003년 '동백숲에 길을 물다' 이후 6년 만에 내는 시집이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그의 모향(母港) 목포에서 오랜 시간 듣고 만져온 '바다'를 소재로 아름다운 풍경과 심상한

이야기를 3부로 나눠 묶었다.

흉아, 주꾸미, 꽃게 등 여러 바다 생물들의 이야기는 독자에게 들려주는 삶에 대한 우화이며 '심오한 생명의 지혜'를 터득하게 한다.

"게다가 어쩔 편/최후의 밤이라 하는 앙 음을 파닥거리며/우리, 제 남은 삶집을/스스로 털어버릴 때도 있다.//를, 저런 지독한 자존!"(우리' 중)

김지하 시인은 추천사에서 "이번 시

집의 상당수 바다 관련 시편들은 한국 최초의 본격 해양문학"이라며 "그가 우리들 모두의 심미적 아이콘인 촛불을, 새로운 바다촛불을 켜고야 말리라는 강한 예감에 힘입으나"고 말했다.

시인은 강진 출생으로 1996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간이역' 등이 있으며 2007년 애지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목포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주 다도면 풍광 노래한 '다도가' 찾아내

나주시청 윤여정씨



곳의 지명을 활용해 풍광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나주호 건설로 수몰되어 없어진 철성 등 땅이름도 나타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도가'는 지은이와 지은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도면장을 지낸 김용철씨는 "1955년에서 1956년 사이에 당시 다도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최용종·김근술·김종구(작고)씨 등이 1955년께 공동으로 지은 작품이며, 글씨는 고 김근술 씨가 쓴 것"이라고 증언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바람개비 어린이도서관
'봄 도서관 엄마학교' 개최

아이들의 놀이터와 둑에 사방방 역할을 해오고 있는 바람개비 어린이도서관(관장 박재춘)이 '2009 봄 도서관 엄마학교'를 개최한다.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까지 모두 4차례 도서관(광주시 북구 용봉동 영암마트 2층)에서 열린다.

강좌는 '슈타이너 인간발달론을 통해 본 아동발달'(담당 푸른별 자연학교 조정신 교사), '역사와 놀기'(박재춘 바람개비 어린이도서관장)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주 강좌에는 '동화 읽는 엄마 예비모임'이 함께 열린다. 참가비 2만원. cafe.daum.net/barabom.

문의 062-433-1279, 011-645-042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위안부 할머니의 '10년 법정 투쟁'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할매꽃'과 광주극장에서 같이 상영중인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이하 나의 마음)는 일본을 감동시킨 조선인 위안부 송신도 할머니의 뜨거운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안해룡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나의 마음'은 일본 정부와 10년 넘게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송신도 할머니와 이를 지원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는 일본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본인 600여 명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만들어졌으며



배우 문소리가 나레이션을 맡았다.

광주극장은 5일 오후 3시 30분 영화 상영이 끝난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메가박스
구.현대국제거리 ☎ 예매 1544-0600

| | |
|---------------------------------|------|
| M관 그림자살인 (15세) | 최고급관 |
| 2관 분노의 질주 (15세) | |
| 3관 푸시 (15세) / 기프트 (15세) | |
| 4관 실종 (18세) | |
| 5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 |
| 6관 슈퍼홀릭 (12세) | |
| 7관 카오스 (15세) / 더리더 (18세) | |
| 8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세) | |
| 9관 그림자살인 (15세) | |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이 한 편): 2시간 30분 초과시 경상금 부과



영화안내
www.megabox.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1관 그림자살인 (15세)
2관 분노의 질주 (15세)
3관 푸시 (15세) / 기프트 (15세)
4관 실종 (18세)
5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6관 슈퍼홀릭 (12세)
7관 카오스 (15세) / 더리더 (18세)
8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세)
9관 그림자살인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3시간 무료입니다.
* 매일상영합니다.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한도시민 영화관 www.joycbc.com 1588-7941
상무점 하남점

골돌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허남점 (무역관앞)

| | |
|---|--|
| 1관 더리더 (15세) / 슬럼독 밀리어네어 (15세) | |
| 2관 슬픔보다 더슬픈이야기 (15세) / 더리더 (18세) | |
| 3관 그림자살인 (15세) | |
| 4관 그림자살인 (15세) | |
| 5관 소파풀리 (12세) / 카오스 (15세) | |
| 6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 |
| 7관 기프트 (15세) / 분노의 질주 (15세) | |
| 8관 카오스 (15세) / 푸시 (15세) | |
| 9관 실종 (18세) | |
| 10관 분노의 질주 (15세) | |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82-02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고객센터 고객감동 www.hamicinema.co.kr 1588-0120
하미 시네마
전화번호 하미스포츠 287-7777

| | |
|-----------------------------|--|
| 1관 드래곤볼 에볼루션 (전체) | |
| 2관 분노의 질주 (15세) | |
| 3관 작전 (15세) | |
| 4관 워낭소리 (전체) | |
| 5관 분노의 질주 (15세) | |
| 6관 슬픔보다 더슬픈이야기 (15세) | |
| 7관 카오스 (15세) | |
| 8관 푸시 (15세) | |
| 9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 |
| 10관 실종 (18세) | |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실야
* 이동 풍선차 & OK 카페 키드 할인 혜택

세미나 기관 www.prinuksinema.com * 제일시네마 227-1960

제일시네마
총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

| | |
|---------------------------------------|--|
| 1관 그림자살인 (15세) | |
| 2관 실종 (18세) | |
| 3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 |
| 4관 분노의 질주 (15세) | |
| 5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세) | |
| 6관 슬픔보다 더슬픈이야기 (15세) 더리더 (18세) | |

* 무로주차 3시간
(단, 푸시는 1시간) * 아동 풍선차 할인 혜택
* 세미나 기관 고액 할인 혜택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